

“자비사상 바탕으로 이주민과 함께하고자”

JTS 다문화센터 개원 8월 23일부터 한글교육 실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17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불법 체류, 의료 사고 등 인권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불교계의 다문화지원원은 아직도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이웃 종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다보니 불교계가 이주민들도 한국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JTS 다문화센터(원장 월광)의 개원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없다.



스리랑카 이주민들은 8월 23일 한글교육을 받고 이주민 모임을 개최했다.



JTS다문화센터 8월 18일 개원식. 법륜 스님(오른쪽 네번째)과 다문화센터 원장 월광 법사(오른쪽 세번째) 등이 케이크 축하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 비율 높은 안산시 위치
8월 13일 개원식 갖고 활동 시작
법륜 자문·의료지원 등 제공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JTS의 첫 다문화센터가 안산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면 인구의 10%가 외국인 거주자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은 굉장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산 지역은 이미 외국인 거주자가 인구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해야 할 문제의 샘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JTS 다문화센터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프로그램으로 8월 23일 한글교육이 시작되었다. JTS 다문화센터 원장 월광 법사는 “8년 전부터 인근의 법륜사에서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위해 한글교실을 운영해왔다. 초창기에는 10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원이 줄어들어 현재는 10명 정도만 수업에 들어와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 센터가 문을 연다고 하니 주지스님께서 한글교실반 운영을 의뢰했고 첫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수업은 매주 일요일 진행되며 앞으로 토요일까지 시간대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리랑카 공동체 날카사 대표는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개원해 반갑다며 앞으로 이곳이 이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불교신자지만 한국에 와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센터만 만났지 불교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오늘 처음 만났다. 그러니 이

번 개원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JTS 다문화센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JTS 다문화센터는 이주민 돕기 ‘아나바다’ 장터 운영,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JTS거리모금 캠페인, 종교모임 지원 등을 열어갈 계획이다.

월광 법사는 “JTS 캠페인은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인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함께 캠페인을 열려고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 지역을 행복이 피어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앞으로 많은 봉사자들이 오셔서 이런 취지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향후, JTS는 안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문화센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031)495-8995

정혜속 기자 bwjns@hyunbul.com

일산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서 대상 수상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14년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월 4일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노인일자리 평가대회’는 전국 시군구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시상하고 격려하는 대회이다.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4년 365고양살버새씨킴이, 공영주차장관리, 1~3세대 감사파견, 호수공원

생태해설, 지하철터배 등 19개 사업단(사회공헌형 17개, 시장형 1개, 자립형 1개)을 운영하여 총 40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2015년에는 14개 사업단, 총 3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고양도시관리공사 등과 연계를 통해 노인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공헌형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정혜속 기자

서울노인영화제 트레일러 주연배우 모집

9월 6일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최하는 제 8회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트레일러의 주연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 오디션이라는 새로운 제작방식을 도입해 어르신에게 주연 배우의 기회를 안겨주며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공식 트레일러를 완성한 서울노인영화제. 올해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정한 세대통합을 보여줄 예정이다.

제 8회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제로 기획, 오디션을 통해서 영상 메시지의 주인공을 찾는다. 참가 자격은 60대 이상 어르신 혹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9월 3일까지 이메일(sisff@siff.or.kr)로 접수 가능하며 9월 6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트레일러의 주연배우를 선발 예정이다.

서울노인영화제 사무국은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난해 공식 트레일러 주연배우 오디션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의 기회를 안겨주며,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제 8회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해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세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며 이번 오디션 기획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한편, 서울노인영화제는 10월 21일 ~23일 서울극장에서 노년세대의 자유주제 부문과 청년 세대의 노인주제 부문으로 나뉘어 단편경쟁영화제로 진행된다. (02)6911-9500

정혜속 기자

밤길 걸으며 ‘소외 이웃 겨울나기’ 도와요

폭방촌 연탄지원 기금마련 108DAY

도심 속 아름다운밤길걷기

다녀오세요! 함께 걷는 밤길 걷기

2015년 10월 8일 오후 6시 조계사

www.dreaminus.org

연탄지원 기금마련 '108DAY' 포스터

동행, 10월 8일 '108DAY' 폭방촌 연탄 지원 기금 마련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0월 8일 저녁 6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폭방촌 연탄 지원 기금마련 '108DAY' 도심 속 아름다운 밤길 걷기'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108DAY 행사'는 불교계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바른 일상 속에 도심의 밤길을 걸으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된 아름다운동행의 대표 나눔 캠페인이다.

아름다운 동행은 “조계사를 시작으로 약

11km의 코스로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장충단공원, 남산산책로, 명동, 조계사로 완주하게 되며 그동안 도심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낭만의 길로 안내하게 된다. 더불어 걷기 완주 후에는 조계사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나를 깨우는 108배와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진 '예경'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아이연탄맨' 선포식을 진행하며, 이번 행사에 참가자들은 연탄 배달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정신의 여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기심이 생기고, 배려심도 사라지고 있다. 나를 돌아봤을 때 비로소 주변이 보이게 된다. 아름다운동행은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밤길 걷기를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원으로 이는 추운 겨울을 폭방촌 연탄 지원기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이 금액은 약 333장의 연탄 가격에 해당된다. (02)737-9595

정혜속 기자

본동복지관 경로당 컴퓨터 전달식

8월 20일 임원진 간담회도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8월 20일 지역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컴퓨터 전달식 및 임원진 간담회를 실시했다.

본동복지관은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컴퓨터 전달식을 가졌다. 본동복지관은 “경로당의 IT환경이 구축되어 어르신들로 하여금 보다 질 높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경로당 임원진 간담회에서는 본관 관리경로당 11개소의 회장 및 임원, 총 17명이 참석하여 2015년 신바람경로당 사업 안내 및 진행일정을 설명하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



본동복지관 경로당 컴퓨터 전달식

간을 가졌다.

경로당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 경로당 임원진 간 상호교류 및 관계향상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긍정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관 역할 제고 및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02)817-8052

정혜속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